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라 [누가복음 19:11-27]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11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12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4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26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나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본문 11 절 말씀에서 동일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것이라는 예측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의 왕국을 재건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열 므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늘왕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한다 —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왕국은 무엇보다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온다고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0-21).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상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재림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안에 그 뜻이 명확하게 담겨있습니다. 왕국을 상속받으려 떠나는 귀인의 비유는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왕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분께서 맡기신 일들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오늘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재림하실 그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야만 합니다.

2. 하늘왕국은 신실한 자에게 축복으로 임한다 —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로 올라가신 후 이 땅에 홀로 남겨져 다시는 그 분이 안 돌아오실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세 명의 종들의 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둘은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므나를 신실하게 사용했으나 남은 한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준 므나를 무시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충실한 두 종은 칭찬했지만 세 번째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충실한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분께 믿음으로 드린 신앙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그 분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하늘왕국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임한다 — 이 비유의 마지막 요점은 귀인을 왕으로 원하지 않는 무리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의 태도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후반부에 우리는 얼마되지 않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그 분을 왕으로 알고 또 그 분을 왕으로 모시길 원하는 사람들로 살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분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것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관해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되고 신실한 시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